

현대인이 모르고 있는 헤르페스



延世醫大 皮膚科
李正馥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기술되었듯이 헤르페스는 전염성 질환이다. 줄리엣의 입술에 난 헤르페스가 사랑의 열기와 더불어 로미오의 입술로 옮긴 것이다.

헤르페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입술이나 성기에 군집된 수포로 발생하는 단순포진과 몸통이나 팔 다리에 군집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帶狀疱疹)이 있다. 그외 수도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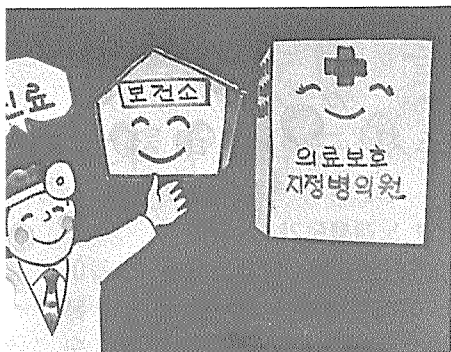
단순포진(單純疱疹)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멸되지 않는다. 즉 일단 감염되면 신경절에 잠재해 있다가 쇠약해 지거나, 피로하거나, 감기 등으로 인해 열이 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멘스를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처음 발생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단순포진은 임상적으로 제 1형(HSV-1 감염)과 제 2형(HSV-2)으로 나누어진다. 1형은 허리 上部에 주로 입술에 발생되며 2형은 허리 下部, 주로 성기에 발생된다. 그러나 나타나는 증세는 동일하며 바이러스 종류가 서로 다를 뿐이다. 성기에도 제 1형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고 입술에도 제 2형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성기에 발생하는 제 2형(음부포진)은 처음 발생시에 주로 성접촉에 의해 발생되므로 성 전염성 질환(성병)에 속하며 재발시에는 성접촉 없이도 앞서 말한 쇠약, 피로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성기의 헤르페스(음부포진, 제 2형)는 여자에 발생하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첫째, 음부포진을 갖고 있는 여자에서 정상인 보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다. 그러므로 보통 6개월에 한번씩 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 자궁암 검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설사 자궁암 세포가 발견되더라도 조기 발견이므로 치료에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분만시에 산도(産道)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으면 애기가 태어날 때 감염될 수 있다. 그 감염율이 매우 높아 약 50%가 되며 이중 60%(전체의 30%)는 신생아 사망, 20%(전체의 10%)는 중추 신경계 혹은 눈에 후유증을 남기고 치유되며, 나머지 20%(전체의 10%)는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여자의 질 속에 헤



▲성기에도 제1형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고 입술에도 제2형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르페스가 발생되어 있으면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 바이러스가 질 속에서 검출되더라도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무증상 감염증도 있으므로, 전에 성기에 헤르페스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상대방 남자의 성기에 헤르페스가 발생한 적이 있는 산모는 분만시에 양수막이 터진 후 4 시간 이내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

대상포진 (帶狀疱疹)

또 하나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며, 소아 시절에 수두를 앓고 난 후 이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의 신경근에 잠재해 있다가 쇠약해 지던지 혹은 면역을 저하시키는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말초 신경의 분포를 따라 군집된 소수포들이 띠(帶)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수포성 발진들은 몸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편측에만 발생하고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옆구리가 결려서 늑막염이 아닌가 내과로, 두통이 심해 신경과 혹은 내

과로, 한 쪽 팔 혹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신경과,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로 먼저 찾아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도 별 이상이 없는데 며칠후에 아픈 부위에 작은 수포들이 밀집되어 발생하여 비로서 피부과로 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통증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된 후에도 병변이 있던 부위에 수개월 이상 신경통 같은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후유증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흔히 나타난다.



▲분만시에 산도(産道)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때 감염될 수 있다.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재발하지 않으나, 재발하는 경우, 몸의 중앙선을 넘어 양측에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숨어 있는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면역이 저하된 질환, 특히 암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이런 환자에서 약 5%이므로 반드시 환자를 입원시켜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